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2. 17.(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위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첫 기획 회의(키오프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7일(화)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 전문가 자문을 위한 회의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 아동단체, 아동 위원 등 위원 32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지표 악화,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 등 아동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20년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여 2024년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현장 중심, 아동 중심으로 수립되어 아동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제1차 자문위원회 개요
2.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구성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안정습 (044-202-3429)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정책평가연구부	책임자	부 장	정정희 (02-6454-8581)
		담당자	담당자	김시아 (02-6454-858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회의 개요**

- **(회의명)**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 **(일시)** '24.12.17(화) 14:00~16:00
- **(장소)**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역 인근)
- **(참석)**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보장원장(자문위원장),
민간 전문가, 유관 단체소속 전문가 등 실무자 포함 총 20여 명
- **(주요 논의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 **일정(안)**

시간		세부일정	비고
14:00~14:05	(5)	인사말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보장원장
14:05~14:30	(25)	아동정책기본계획 자문위원회 소개 및 운영방안 의견수렴	아동정책과장, 아동권리보장원장
14:30~14:40	(10)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
14:40~15:40	(60)	자유토론	-
15:40~15:45	(5)	마무리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보장원장

붙임2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구성

구분(총 32인)		위원
자문 위원장(1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간사(1인)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민간 전문가 (13인)	총괄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1. 돌봄· 교육·발달	정선욱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전공)
		박지연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이정림 객원교수(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지원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건강	이혜진 교수(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경연 교수(울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3. 아동 보호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재진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아동 존중	조소연 겸임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현선 교수(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수정(前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 대표)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아동단체(6인)		굿네이버스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위원 (9인)	아동 (7인)	연령·성별·지역 고려 7인 위촉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단체 추천 고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위원 (2인)	박찬미(대한민국 아동총회 TF 위원)
		신선(바람개비 서포터즈)
언론계(2인)		김지영 기자(이투데이)
		이지현 기자(이데일리)